

한국어 동사구 전치와 동사구 내 주어 가설*

이광호

(경상대학교)

Lee, Kwangho. 2003. VP Preposing in Korean and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2). 91-108. Chomsky (1995) suggests that subjects originate in the Spec of *v*P except in the unaccusative verb construction and that they raise to the Spec of TP. However, it was unclear whether his suggestions can be extended to Korean.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subjects in Korean also have to be taken as originating in the Spec of *v*P and raise to the Spec of TP. I also show that syntactic analyses of *v*P preposing phenomena face problems if subjects are assumed to move out of *v*P to the Spec of TP as suggested by Chomsky. If the subject remains in the *v*P, *v*P preposing constructions can not be derived. If the subject moves out of the *v*P leaving its trace in the Spec of *v*P, *v*P preposing constructions will be wrongly predicted to be ungrammatical due to the violation of the PBC since the preposed *v*P will contain the trace of the subject which is not *c*-commanded by its antecedent. To avoid these problems I suggest that *v*P preposing is not syntactic movement but PF movement, showing that syntactic approaches cannot deal with the problems.

주제어(Key Words): 동사구 내 주어 가설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적정 결속 조건 (Proper Binding Condition), 동사구 전치 (VP Preposing)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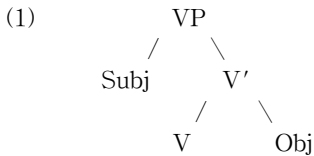
Chomsky (1993)는 영어의 주어가 동사구 V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Chomsky (1995)에서는 비대격동사 (unaccusative verb) 구

* 본 논문은 대한언어학회 2002년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수정 보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조언과 도움 말씀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학회에서 좋은 질문과 논의를 해주셨던 선생님들과 이 논문의 작성 과정 중 좋은 토론을 함께 해주셨던 이정식, 장영준, 정연진, 조세연, 최기용, Jeanette Gundel 교수님께도 감사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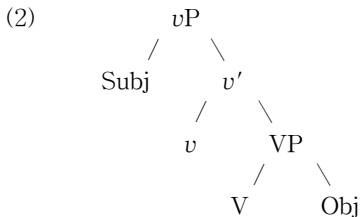
문을 제외하고 다른 동사 구문의 경우 경동사구 vP 의 지정어 자리에 주어 가 나타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주어 가 그와 같이 vP 의 지정어 자리에 병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사구 내에 주어 가 나타난다고 볼 경우 동사구 전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동사구 내 주어 가설과 주어의 인상

Chomsky (1993)는 동사구 내 주어 가설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받아들여 주어는 (1)과 같이 의미역을 담당하는 동사의 최대 투사인 V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Kuroda, 1988; Sportiche, 1988; Huang, 1993 among others).



그러나 Chomsky(1995)는 Larson (1988)의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와 같이 영어의 비대격동사 구문을 제외한 다른 동사 구문에서 주어는 (2)와 같이 경동사의 최대 투사인 vP 의 지정어 자리에 병합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Chomsky (1999, 2000)는 vP 의 지정어 자리에 병합된 영어의 주어는 T와 Φ -자질상의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주격을 인가 받게 된다고 보고,¹⁾ T의

1) Chomsky (1999, 2000)는 목표 요소 (goal)의 구조격은 finite T (주격), v (대

EPP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 (Move) 한다고 보았다.²⁾ 그러나 Chomsky (2001)는 주어가 TP의 지정어 자리로 인상되는 것은 T의 비해석 자질인 EPP자질의 점검을 위한 이동이 (Move) 아니라 T의 OCC자질의 점검을 위한 내적 병합 (internal Merge)이라고 본다. 그리고 내적 병합의 적용은 범주나 담화 관련 (정보적인) 자질과 같은 비의미 격적인 C-I 조건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본다. OCC 자질은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새로운 의미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어질 수 있는 핵의 선택적 자질이다. 따라서 핵은 새로운 범주 자질이나 담화 관련 자질의 생성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OCC 자질을 가질 수 있다. 핵이 OCC자질을 가질 때는, OCC 자질이 내적 병합에 의해 점검될 경우 새로운 의미 해석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3.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과 주어의 위치

영어에서처럼 한국어에서도 주어는 의미역 배당자인 동사의 최대 투사 범주 내에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면 한국어의 주어가 중동사구 V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는지 경동사구 *v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Chomsky (1995)의 주장을 따라 한국어에서도 주어는 경동사구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타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그런 가정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 방법이므로 여기서는 다음의 (3a)와 같은 한국어의 부정문 중 소위 장형 부정 구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격), control T (영격) 등과 같은 탐색자 (probe)와 Φ -자질상의 일치 (Agree)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한한다. 일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탐색자와 목표 요소가 Φ -자질에 있어서 서로 합치 (match) 되어야 하며 목표 요소가 국부성 조건 (locality condition)을 만족시키면서 탐색자의 영역 (domain)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국부성이란 가장 가까운 성분 통어 (c-command)를 뜻한다.

2) 장영준 (2002)은 영어의 주어는 EPP자질의 점검을 위해서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동사가 T 자리로 이동한 후에 V2 현상을 만들기 위해 동사 앞자리인 T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여기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Chomsky의 주장대로 영어의 주어는 EPP 또는 OCC 자질의 점검을 위해 이동한다고 본다.

- (3) a. 잔이 책을 읽지를 아니 했다.
- a'. ?[책을 읽지를] 잔이 아니 했다.
- b. 잔이 책을 읽기를 했다.
- b'. [책을 읽기를] 잔이 했다. (이정식, 1992)

3.1. 한국어 장형 부정 구문의 구조

만일 송석중 (1967, 1977)처럼 (3a)와 같은 구문에서는 동사 *하-* 와 동사 *읽-* 이 각각 상위문과 하위문의 동사구를 형성하고 Comp -지에 의해 상위문과 하위문이 연결되는 (4)와 같은 복문 구조를 지닌다고 보면 (3a') 같은 문장은 하위문 전치에 의해 쉽게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 (4) 잔이 [*pro* 책을 읽지를] 아니 했다.

그러나 한학성 (1987)은 한국어 장형 부정 구문의 *하-* 는 중동사 *하-*와 달리 (5a)에서처럼 축약규칙에 의해 탈락될 수도 있고 (5b)와 같이 수동화되지도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목적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은 복문이 아닌 단문이라고 주장했다.

- (5) a. 잔이 책을 읽지를 *않*았다.
- b.*(잔에 의해) 책을 읽지가 아니 해졌다.

최기용 (1991)과 이정식 (1992)은 부정 극어를 이용한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의 부정 구문을 복문 구조로 보면 (7)에서처럼 부정 극어 *아무것도*와 부정어 *아니*가 다른 절에 위치하게 되어 (7)과 같은 정문이 (6b)와 같은 비문으로 잘못 예측되어지는 점을 들어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은 복문이 아니고 단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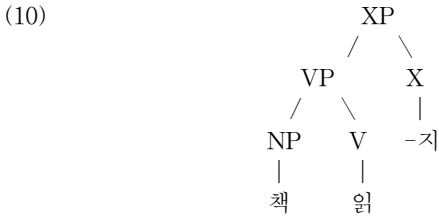
- (6) a. 잔이 [*pro* 아무것도 *아니* 읽었다고] 주장했다.
- b. *잔이 [*pro* 아무것도 읽었다고] 주장하지 *아니* 했다.
- (7) 잔이 [*pro* 아무것도 읽지] *아니* 했다.

또한 강명운 (1988)과 최기용 (1991)은 장형 부정 구문의 *하-*에 나타나는

상 (aspect)이 -지에 선행하는 술어의 상태성 (stativity)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근거로 장형 부정 구문이 단문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 (8) a. 메리가 예쁘다.
 b. *메리가 예쁘다.
 c. 메리가 간다.
- (9) a. 메리가 예쁘지 아니 하다.
 b. *메리가 예쁘지 아니 한다.
 c. 메리가 가지 아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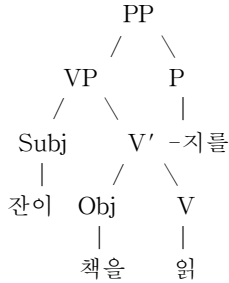
-지가 어떤 범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이정식 (1992), 정연진 (1992), 양동휘 (1993), 이광호 (1997)등은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이 단문 구조를 지닌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가 머리어가 되어 독립된 최대 투사를 이룬다고 보고 동사구를 다음과 같이 명사화 어미 -지의 최대 투사 내부에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³⁾



양동휘 (1993)는 Chomsky (1993)의 최소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 장형 부정 구문을 단문 구조로 분석하면서 주어가 (11)에서처럼 중동사구 VP의 지정어 자리에 격 자질을 가지고 나타나서 AGRsP의 지정어 자리로 주격 점검을 위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3) 여기서는 연결 어미인 -지를 전통적으로 명사화 어미로 간주되어 온 -기의 부정 이형태소로 보고 이정식 (1992)의 제안을 따라 -기/-지가 명사구의 머리어가 된다고 본다 (cf. 강명윤, 1988).

(11)



그러나 만일 (3a) 같은 표현들의 동사구가 위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한국어의 주어(Subject)를 VP의 지정어 자리에 설정하는 것은 문체에 봉착하게 된다. 주어가 동사구 [책을 읽지/기] 내에 있다고 본다면 (3a')와 같은 표현의 도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주어가 통사부에서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면, 적정 결속 조건 (The Proper Binding Condition)이 나

(12) 적정 결속 조건 (The Proper Binding Condition) (Fiengo, 1977):⁴⁾
 흔적은 결속되어야 한다.

일반화 적정 결속 조건 (The Generalized Proper Binding Condition)을 위배하게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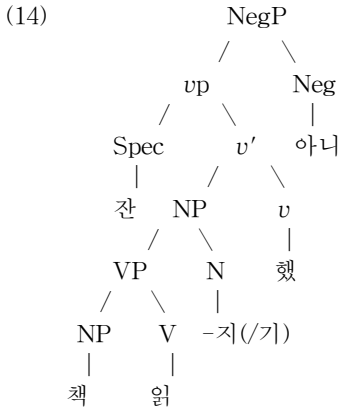
(13) 일반화 적정 결속 조건 (The Generalized Proper Binding Condition) (Lasnik & Saito, 1992):
 흔적은 모든 도출 과정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LF에서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4) Abels (2001) 같은 학자들은 적정 결속 조건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Freidin (1999), Tanaka (2002) 같은 학자들은 적정 결속 조건을 유효한 조건으로 보며 최근의 최소주의적 통사 분석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결속 조건을 인정하면서 동사구 전치에 대한 통사적 분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적정 결속 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고 동사구 전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3.2. 한국어 주어의 위치

앞에서 언급한 문제는 주어의 위치를 (14)에서와 같이 경동사구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에서 중동사가 경동사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지 않더라도 이정식 (1992)에서 제안된 것처럼 한국어 장형 부정 구문에서 중동사와 경동사가 비가시적 복합 술어 (covert complex predicate)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중동사의 의미역을 포함한 의미 정보가 경동사로 전이된다고 보면 주어에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처럼 주어가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vP*의 지정어 자리에 주어가 병합되어 나타난다고 보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주어가 제자리에 있다고 보아야 할지 영어에서처럼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할지가 명확치 않다. 영어에서는 (15)에서처럼 부사의 위치를 기초로 동사구 내에 있던 주어가 명시적으로 동사구 바깥으로 나와 *TP*의 지정어 자리로 갔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처럼 부사의 위치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주어 인상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⁵⁾

5) 개인적 논의에서 Whitman과 Saito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주어가 영어의 주어처럼 동사구 밖으로 명시적인 이동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15) John_i probably [_{VP} t_i read the book].

여기서는 Chomsky (1995, 1999)의 보편주의적 입장을 따라 한국어에서도 주어가 T의 OCC 자질 점검을 위해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보겠다.

4. 동사구 전치의 이론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앞 절에서는 한국어의 주어가 경동사구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고 봄으로써 장형 부정 구문을 단문 구조로 보는 입장에서도 명사화된 동사구 이동을 통해 (3a')와 같은 문장의 도출이 가능함을 보였다. 여기서는 명사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사구를 가진 (16a)와 같은 한국어 문장과 (17a)와 같은 영어 문장에서 동사구 이동을 통해 (16b), (17b)와 같은 표현을 최소주의 이론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찰한 후 (16b)와 (17b)같은 문장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6) a. 철수가 [밥을 먹었지].

b. [밥을 먹었지] 철수가.

(17) a. _____, but she could not [find it].

b. _____, but [find it] she could not ____.

(Radford, 1988, p. 528)

(16)의 한국어 문장에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동사에 부착되어 있고 (17)의 영어 문장에서는 시제나 일치 자질을 포함하는 굴절 어미가 동사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동사구 전치가 적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국어에서 동사에 부착되는 시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등과 같은 요소들이 어휘부에서 부착되어 나오지 않고 통사부에서 각기 다른 기능 범주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보면 (16b)와 같은 한국어 표현은 (17b)와 같은 영어 문장에서처럼 동사구 전치에 의해 도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주어는 문장의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16b)와 같은 표현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⁶⁾ 이러

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한 주어 우향 이동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영어에서는 왜 주어 우향 이동에 의해 (18b)와 같은 표현이 도출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⁷⁾

(18) a. *John_i probably* [_{VP} *t_i read the book*].

b. **Probably* [_{VP} *t_i read the book*] *John_i*.

한국어에서 주어의 우향 이동에 의해 (16b)와 같은 문장이 도출된다고 본다면 영어에서도 주어의 우향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관점이 될 것인데 (18b)와 같은 영어 문장이 비문인 것을 설명하려면 외치 현상이 가능한 언어인 영어에서는 주어의 우향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를 논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이를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상의 차이 중 하나

6) 시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같은 요소들이 한국어 동사에 부착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16b)와 같은 문장이 주어의 우향 이동에 의해 도출되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어 동사에 부착되는 접사들이 통사부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하에선 그와 같은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93, 1995)가 제안한 어휘주의자적 입장 하에서 (16b)와 같은 한국어 문장을 설명하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들의 해소 가능성과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7) 한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는 영어의 presentational there 구문에서 일부 제한된 동사들이 올 경우 주어의 우향 이동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18b)는 우향 이동을 허용하는 동사와 관련된 어휘 선택의 문제이면서 EPP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다.

(i) a. There stands in the corner of the room an old file cabinet.

b. There ran down the street two joggers.

이와 같은 관점에서 *read*와 같은 타동사는 *stand*나 *run*과 같은 주어 우향 이동을 허용하는 동사와는 다른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우향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18b)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 타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EPP를 충족시키기 위해 좌향 이동을 한 후에 우향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왜 한국어 타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EPP의 충족을 위해 좌향 이동을 한 후에 우향 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어휘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을 하려 한다면 한국어 타동사와 영어 타동사가 주어의 통사적 이동에 대해 다른 제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어와 영어의 타동사가 왜 그러한 통사 이동에 대한 제약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문제를 두 언어의 임의적인 어휘적 특성상의 차이로 남겨두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본다면 한국어의 (16b)와 같은 문장이 동사구 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의 우향 이동에 의해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Chomsky (1993, 1995)의 주장을 따라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에서도 동사에 부착되는 시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와 같은 요소들이 어휘부나 numeration에서 이미 동사에 부착되어 통사부로 들어온다고 보면 (16b)와 같은 문장이 영어에서처럼 동사구 전치에 의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취해 (16b)와 같은 한국어 표현을 동사구 전치에 의해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⁸⁾

Chomsky (1993, 1995)는 영어나 불어 같은 언어들에서 동사의 시제나 일치 자질과 같은 요소들이 어휘부나 numeration에서 동사에 부착되어 통사부에 나타나며 통사부 또는 논리 형태 (LF)에서 자질 점검을 한다고 보지만 이와 같이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 Chomsky (1995)처럼 중동사 V가 경동사 v로 가시적 이동을 한다고 보는 분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8) 최기용 (2003)은 핵 이동 및 복사 이론을 이용한 용언 반복 구문의 반복 양상에 대한 설명이 종결형 형성을 위한 통사부 가설을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ho & Kim (2002)은 핵 이동 및 복사 이론을 이용한 최기용의 분석으로는 (i)에서처럼 용언 수식 부사가 반복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용언 반복 구문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i) 존이 톰을 (자주) [만나기는] 자주 만났다.

그들은 용언 반복 구문을 고유한 구문 제약을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대조적 화제 구문 (contrastive topic constructions)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그들이 제안한 구문 제약을 이용할 때 용언 반복 구문의 특성들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최기용이 주장하는 종결형 형성을 위한 통사부 가설에 대한 논증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심사 위원의 지적과 같이 이 논문에서처럼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 (ii)와 같은 표현의 문법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ii) 존이 책을 [읽기는/*읽었기는] 했다.

(ii)와 같은 예에서 읽기는은 가능하지만 읽었기는은 불가능하다. 읽-이라는 동사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휘부에서 동사가 반드시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제 선어말 어미 같은 요소는 동사에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절에는 시제 요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데 (ii)와 같은 문장의 읽었기는의 경우에는 시제 요소가 *했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기에 다시 나타나 틀린 표현이 되었다고 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cf. Jung, 1992).

(16b)에서 경동사구의 지정어 자리에 병합되어 나타나는 주어가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때 vP 의 지정어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나가기 때문에 경동사구가 전치되어 나갔다고 보면 적정 결속 조건에 위배되고, v' 만 나갔다고 보면 적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는 문제는 피할 수 있겠지만 Chomsky (1995)의 이론에서는 X' 가 연산을 위해 비가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v' 가 이동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⁹⁾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어의 동사구 전치 구문인 (17b)에서도 생긴다. (17b)의 예에서는 경동사구가 주어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주어의 흔적을 제외한 v' 만 전치된다고 봄으로써 해소될 수가 없는 문제이다.

5. 통사적 접근 방법과 음성 형태적 접근 방법

5.1. 통사적 접근 방법

이와 같은 문제는 Kayne (1995)과 같이 동사구를 최대 투사로 보고 주어는 부가어로서 동사구에 부착되어 [_{NP} 주어 [_{VP} 목적어 동사]]--영어의 경우에는 [_{NP} 주어 [_{VP}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면 해소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동사구가 v' 로 나타나지 않고 최대 투사인 vP 로 나타나는 하지만 Kayne (1995, p. 1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segment이기 때문에 선행어 지배 (antecedent-govern)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동이 될 수 없다.¹⁰⁾ 결국 (16b) 같은 한국어 표현이나 (17b) 같은 영어 표현은 동사의 접사들이 어휘부에서 부착되어 통사부로 나온다고 보고 중동사가 경동사로 가시적 인상을 한다고 보는 Chomsky (1995)의 이론이나 동사구를 중간 투사가 아닌 최대 투사로 보는 Kayne (1995)의 이론에서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K. Lee, 2002, pp. 165-166).

9) Chomsky (1995)는 순수 구 구조 (Bare Phrase Structure)를 바탕으로 X' 와 X^0 만이 접합점 (interface)에서 연산 (computation)을 위해 가시적 (visible) 이라고 보고 X' 는 비가시적 (invisible)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f. Huang, 1993).

10) Kayne (1995, p. 17)은 동사구를 최대 투사로 보고 있지만 어떤 요소가 부착되어 있는 구는 선행어 지배가 될 수 없는 segment이기 때문에 이동되어 나갈 수 없다고 봄으로써 최대 투사로 설정되는 동사구가 왜 전치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이론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통사적 접근 방법으로는 Chomsky (1995)와 달리 X"와 X⁰만이 아니라 X'도 접합점 (interface)에서 연산 (computation)을 위해 가시적 (visible)이라 보고 *v'*가 문두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분석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v'*가 문두로 이동할 수 있다면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주어의 흔적은 그 자리에 남게 되므로 적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19) [_{*v'*} 밥을 먹었지] 철수_{*i*}가 [_{VP} *t_i* *t_{v'}*].

(20) [_{*v'*} find it] she_{*i*} could not [_{VP} *t_i* *t_{v'}*].

그러나 이러한 경우 X'가 LF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통사 범주라고 하더라도 (cf. Chomsky, 2001), Huang (1993)의 지적처럼 X' 이동은 문법의 다른 일반 원리에 관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v'*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v'*전치 분석은 유지되기가 힘들다.¹¹⁾

또 다른 통사적 접근 방법으로, 경동사구가 재구된다고 가정하고 주어의 흔적이 재구된 경동사구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경동사구 내에 위치하는 주어의 흔적이 선행어에 의해 성분 통어될 수 있기 때문에 (16b), (17b)와 같은 표현이 적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사적 접근 방법은 (21), (22)과 같은 표현이 비문임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K. Lee, 2002, pp. 167-168).

(21) *[how likely *t_i* to be a riot]_{*j*} is there_{*i*} *t_i*?

(cf. there is likely to be a riot.)

11) Huang (1993)은 V' 전치를 인정한다면 왜 VP 전치가 논항 전치보다 재구의 가능성을 적게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V' 전치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i) a. Those pictures of himself_{*i/j*}, John_{*i*} thinks Bill_{*j*} will buy *t*.

b. Criticize himself_{*i/j*}, John_{*i*} thinks Bill_{*j*} will not *t*. (Huang, 1993, p. 108)
위의 예문 (ia)에서 화제화된 명사구는 두 가지 형태의 재구 가능성을 지니지만 (iib)에서는 전치된 동사구가 한가지 형태의 재구 가능성만 지닌다. 그 이유에 대해 Huang은 동사구가 전치될 때는 주어 Bill의 흔적을 지닌 채 전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V'만 전치된다고 보면 V'에 주어의 흔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구 전치가 지니는 이러한 재구의 제한적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22) *[how likely t_i to be taken of John] $_j$ is advantage $_i$ t_i ?

(cf. advantage is likely to be taken of John.)

(Lasnik & Saito, 1992, p. 141)

즉, (21), (22) 같은 문장에서 전치된 구가 원래의 위치에 재구된다면 재구된 구 내에 있게 되는 *there*와 *advantage*의 흔적이 선행어에 의해 성분 통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6b), (17b)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21), (22) 같은 비문까지 정문인 것으로 잘못 설명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치된 구가 재구된다고 보는 통사적 접근 방식도 동사구 전치 현상이 걱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한다.¹²⁾ 지금까지 Chomsky (1993, 1995)같이 어휘부에서 동사의 접사들이 부착되어 통사부로 들어온다고 볼 때 (16b), (17b)와 같은 표현들을 동사구 전치에 의해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5.2 음성 형태적 접근 방법

그러나 통사적 접근 방법들과는 달리 vP가 주어의 이동 후 음성 형태 (PF)에서 문두로 이동했다고 보면 vP 내에 주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K. Lee, 2002, pp. 171-172). 왜냐하면 주어의 흔적이 주어에 의해 성분 통어 되지 않아 걱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적은 음성 형태에서 삭제되므로 결국 걱정 결속 조건이 음성 형태에서는 적용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구 전치를 음성 형태상의 이동으로 보면 통사적 이동으로 볼 때와는 달리 (17b)와 같은 영어 문장뿐만 아니라 (16b)와 같은 한국어 문장도 어휘주의자적 입장에서 동사구 전치를 통해 간단히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3)에서처럼 동사구 전치 현상은 어순 뒤섞기 (scrambling)와는 달리 결속 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 a. 순희 $_i$ 의 오빠가 [그녀 $_i$ 를 아주 미워한다].

b. *그녀 $_i$ 를 [순희 $_i$ 의 오빠가 t_i 아주 미워한다]. (어순 뒤섞기)

12) Huang (1993)과 Haegeman (1994, p. 529-532)은 동사구 재구를 통해 결속 이론 (Binding Theory)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속 이론의 문제와는 달리 걱정 결속 조건 (PBC)의 문제는 동사구 재구를 통해 해소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 [그녀_i를 아주 미워한다]_j 순희_i의 오빠가 _{t_j}. (동사구 전치)

(23b)에서와 같이 목적어인 그녀를 어순 뒤섞기를 하여 전치시킬 경우 대명사 그녀가 순희를 성분 통어 (c-command)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는 순희를 가리킬 수 없다 (cf. 양동휘, 1989, p. 362).¹³⁾ 그러나 (23c)에서처럼 그녀를 아주 미워한다라는 동사구 전체를 전치시킬 경우에는 그녀가 순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다.¹⁴⁾ 즉 어순 뒤섞기와는 달리 동사구 전치는 결속 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동사구 전치를 통사적 이동으로 보아도 대명사 그녀가 선행어인 순희를 성분 통어하지 못하므로 (23c)의 문법성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음성 형태상의 이동으로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동사구 전치는 양화사 인상과 관련된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24) a. 모든 소년이 [_{LP}한 소녀를 만날 것이다].

b. [_{LP}한 소녀를 만날 것이다] 모든 소년이.

(24b)처럼 동사구를 전치시킬 경우 (24a)와는 달리 전칭 양화사인 모든 소년이 좁은 작용역 (narrow scope)을 가지고 존재 양화사인 한 소녀는 넓은 작용역 (wide scope)을 가지는 해석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존재 양화사 한 소녀가 좁은 작용역을 가지게 되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어느 해석이 더 강한가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동사구 전치로 인해 중의성을 지니는 양화사 구문의 기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¹⁵⁾

13) 양동휘(1989, pp. 362-364)는 어순 뒤섞기는 결속 원리에 영향을 준다고 논증했다.

14) 여러 사람들에게 (23b)와 (23c)의 문법성에 대해 질문을 해본 결과 (23b)는 틀리지만 (23c)는 좋다고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반대의 대답을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판단을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15) 이와 같은 의미 해석상의 판단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24b)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해본 결과 (24b)에서는 (24a)와 달리 한 소녀가 넓은 작용역을 지니는 해석이 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24b)도 중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 해석상의 판단을 근거로 동사구 전치가 양화사 구문의 기본적인 문장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한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구 전치로 인해 (24b)와 같은 문장의 의미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 (24b)가 중의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본 논문의 주장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24b)에서처럼 동사구를 전치시켰을 때 동사구를 전치시키기 전과는 달리 한 소녀가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만 가능하게 되어 (24a)의 중의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러한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의 심각한 변화를 논리 형태 (LF)에서 포착하기 위해 동사구 전치가 외현적 통사부 (narrow syntax)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4b)의 경우 한 소녀가 넓은 작용역을 지니는 해석이 좀 더 강하기는 하지만 좁은 작용역을 지니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24a)와 (24b) 두 표현 모두 중의성을 지니는 것이고 결국 동사구 전치가 양화사를 포함하고 있는 (24b)와 같은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 해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구 전치에 의해 나타나는 작은 의미 해석상의 변화는 음성 형태에서 일어나는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음성 형태상에서의 변화가 논리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도 음성 형태의 가장 자리에 있다고 하는 Domain Discourse (Kidwai, 1999) 같은 해석 부문에서 기본적인 문장 의미와는 다소 다른 의미 해석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사구 전치가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될 때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심각하게 바뀌지 않고 대화상의 초점이나 문체적 또는 화용적 의미만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면 Chomsky (1999)의 동사 이동에 대한 견해처럼 동사구 전치 현상도 통사적 변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음성 형태상의 문체적 변형으로 보는 것이 보다 나은 것이다.¹⁶⁾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장형 부정 구문을 단문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국어의 주어가 중동사구의 지정어 자리보다는 경동사구의 지정어 자리에 병합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사부에서 동사의 접사들이 연결된다고 보는 입장에선 한국어에서 영어에서와 같은 동사구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도 동사구 전치와 같은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16) Chomsky (1999)는 문장의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동사 이동을 통사적 이동으로 보지 않고 음성 형태상의 이동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Chomsky (2001)는 핵 이동뿐만 아니라 최대 투사인 구의 이동도 음성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수 있으므로, 동사구 내 주어 가설을 받아들이면서 어휘주의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 동사구 전치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의 동사구 전치 현상을 통사적인 이동 현상으로 보는 분석 방법은 동사구 전치 현상이 적정 결속 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잘못 예측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통사적 접근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구 전치 현상을 통사적 이동이 아니라 음성 형태상에서의 이동 현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같이 분석할 때 통사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참고문헌

- 양동휘. (1989). *지배 결속 이론의 기초*. 서울: 신아사
- 최기용. (2003). 한국어의 핵 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2(1), 119-142.
- Abels, K. (2001). On an alleged argument for the Proper Binding Condition. In *Proceedings of HUMIT 2001,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3, 1-16.
- Choi, K.-Y. (1991). *A theory of syntactic X⁰-subcatego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Cho, S.-Y. & Kim, J.-B. (2002). Echoed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 construction-based HPSG analysis. *Korea Journal of Linguistics*, 27, 661-681.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et al. (Eds.), *Step by step: Essays i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 Howard Lasnik (pp.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Unpublished manuscript. MIT.
- Fiengo, R. (1977). On trace theory. *Linguistic Inquiry*, 8, 35-61.
- Freidin, R. (1999). Cyclicity and minimalism. In S. D.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pp. 95-126). Cambridge, Mass.: MIT Press.
- Han, H.-S.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Haegeman, L. (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2nd ed.). Oxford: Blackwell.
- Huang, C.-T. J. (1993). Reconstruction and the structure of VP: Some theoretical consequences. *Linguistic Inquiry*, 24, 103-138.
- Jang, Y. (2002). *Nothing is extended from the projection principle*. Paper presented at the 2002 Winter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Seoul, 4-6 February.
- Jung, Y.-J. (1992). *A Restrictive theory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their parametric vari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Jung, Y.-J. (2000). Syntactic Case vs. PF Case.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1-45.
- Kang, M.-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 Kayne, R. S. (1995).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idwai, Ayesha. (1999). Word order and focus positions in universal grammar. In G. Rebuschi & L. Tuller (Eds.), *The grammar of foc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uroda, Y. (1988). Whether we agree or not. *Linguisticcase Investigations*, 12, 1-47.
- Lasnik, H. & Saito, M. (1992). *Move a: Conditions on its application and output*.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 J.-S. (1992). *Case alternation in Korean: Case minim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 Lee, K. (1997). *A minimalist approach to Case marking and verb movement in Kore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 Lee, K. (2002).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and VP preposing.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3, 159-175.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S.-C. (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Song, S.-C. (1977). Pwuceng-uy yangsang-uy pwucengcek yangsang (Negative aspects of aspects of Korean negation). *Kwukchak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5. Seoul, Korea.
- Sportiche, D. (1988). A theory of floating quantifiers and its corollaries for constituent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19, 425-449.
- Tanaka, H. (2002). Raising to object out of CP. *Linguistic Inquiry*, 33, 637-652.
- Yang, D.-W. (1993). *The minimalist theory and the structure of Korean*. Lecture presented at the Second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Seoul.

이광호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5)751-5886

이메일: klee@nongae.gsnu.ac.kr

Received: 21 April 2003

Accepted: 16 May 2003

Revised: 27 May 2003